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남성 경찰공무원의 외상 경험,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교육전공

김 현 정

남성 경찰공무원의 외상 경험,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신 효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교육전공

김 현 정

김현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신 효 정 인

심 사 위 원 홍 정 순 인

심 사 위 원 김 영 희 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6월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직·간접 외상 경험에 노출된 남성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을 이해하고,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문적 도움에 경찰공무원 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 낙인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상정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A 지역의 남성 경찰공무원 258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98.9%의 남성 경찰공무원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의 스트레스 강도를 비교했을 때, 간접 외상 사건 경험의 스트레스가 더 높고, 이로 인한 PTSD는 전체 대상자의 48%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2%만이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낙인만이 유의한 회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남성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11

Ⅱ. 이론적 배경 ····· 12

1. 외상 사건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12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18

3. 성역할 갈등 ····· 20

4. 자기낙인 ····· 22

5.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 24

6. 각 변인 간 선행연구 ····· 28

Ⅲ. 연구방법 ····· 34

1. 연구대상 ····· 34

2. 측정도구 ····· 35

3. 자료분석 ····· 41

Ⅳ. 연구결과 ····· 42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2

2.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 45

3.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경험 ····· 47

4. 연구 대상자들의 상담 경험 여부 ····· 51
5.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검증 ····· 52
6.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 56
7.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58

Ⅴ. 요약 및 결론 ····· 59

1. 요약 및 논의 ····· 59
2. 결론 및 제언 ····· 65

참고문헌 ····· 68
부록 ····· 84

표 목차

<표 1> 외상 사건의 유형 ····· 13
<표 2> PTSD의 DSM-V 진단 기준 ····· 15
<표 3>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선행 요인에 따른 분석 결과 ····· 26
<표 4> 외상 경험 질문지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 35
<표 5> 사건 충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37
<표 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 38
<표 7> 성역할 갈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 39
<표 8> 자기낙인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 39
<표 9>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 40
<표 10>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분포 ····· 43
<표 11>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 46
<표 12> 외상 스트레스 사건 경험 빈도의 기술통계량 ····· 47
<표 13> 응답자들의 외상 경험 빈도 및 스트레스 강도 평균값 49
<표 14> 상담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 51
<표 15> 계급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 53
<표 16> 근무부서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 55
<표 17> 연구 변인들 간의 person 상관계수 ····· 57

<표 18>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표준다중회귀분석 결과 ····· 58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범죄는 최근 5년간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찰 공무원의 외상 경험과 위험성 또한 공존하고 있다. 외상(Trauma)이란 지진, 태풍 등의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가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야기되는 전쟁, 교통사고, 화재, 강도, 강간 등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의미하는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하 APA),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이러한 외상 사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경찰청(2018) 통계연보에 의하면, 살인, 강도, 절도, 납치 감금, 성폭력과 같은 중요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18년 기준으로 545,449건에 이르며, 이는 외상 경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위험한 직무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살인이나, 강도, 폭행과 폭력, 자살, 성폭력 및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 현장에 지속 노출되어 있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는 간접 외상에서부터 범인 검거 시 본인이 부상을 입는 등의 직접 외상 경험을 반복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외상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이옥정, 2010; Clair, 2006). 전국 경찰 1인 담당인구는 437명에 이르며(경찰청, 2018), 이는 경찰공무원의 과중 된 업무와, 강력 범죄 및 사고현장 노출 건수는 경찰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유발 요인임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 사건 현장에 최초 대응하는 직무 특성상, 종종 극한의 상황과 위험성이 높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이하 PTSD)와 같은 정신 질환의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된다(이도선, 2018). PTSD는 매일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경찰관들에게 유독 빈도가 높은 편으로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 3,817명 중 1,569명에서 PTSD 고위험군 분류기준인 25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전체 인원의 41.6%를 차지한다(범은애, 2017). PTSD는 외상 당시의 충격적 기억들이 빈번히 떠오르고, 외상 사건에 대해 회상시키는 장소나 활동을 피하게 되어 만성적 긴장, 불면증 등의 고통을 겪는 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Hackett와 Violanti(2003)는 특정 외상 사건의 노출이 경찰관의 PTSD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알코올 남용과 자살 충동까지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경찰공무원들의 PTSD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위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2010년부터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조기에 진단 및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프로그램 중 특강 형식으로 자살예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경찰복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경찰청, 2013)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이 “있다”가 4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86.9%가 치료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7.8%의 경찰공무원이 자살 충동을 경험했고, 자살 충동이 높은 경찰 보직은 수사(9.4%), 외사(8.8%), 형사/생활안전(8.4%)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간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총 69명(연 평균 17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지영, 임재호, 서수연, 2017).

경찰공무원의 PTSD와 직무스트레스 전문 치유를 위해 2014년 ‘경찰트라우마 센터’를 개소했으나, 잦은 외상 사건과 마주하고 PTSD를 호소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 기관을

찾는 것은 드문 현실이었다. 이후,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는 명칭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고자, ‘경찰 트라우마 센터’는 ‘마음동행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왔다. 이후 2019년 발표된 경찰청 브리핑 결과, 2014년 ‘마음동행센터’의 이용률은 1,279명으로 해당년도 전체 경찰공무원 총원의 1.169%만이 이용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경찰청, 2019). 경찰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인천을 시작으로 울산, 경기 북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9개소를 추가 신설, 지방청 별 1개소씩 총 18개로(경찰병원 포함)의 ‘마음동행센터’를 확대 개소하였다. 근무 중 각종 충격사건 경험 후 신속한 치유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에 ‘마음동행센터’가 없어 알맞은 시기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이 불가한 지역을 보강하고자 한 것이다.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필요 시 병원과 연계하여 통합 심층검사와 치료까지 지원했지만, 2018년 ‘마음동행센터’ 이용률은 2.44%에 그쳐 여전히 경찰공무원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이 낮은 상황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경찰청, 2019). 이에 경찰공무원은 왜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타인으로부터 이해, 정보, 치료, 지지 등을 구하는 것을 도움추구라고 하는데, 특히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전문적 도움추구라고 한다(Kushner & Sher, 1991).

경찰공무원들은 직·간접적인 외상 경험의 잦은 노출과 PTSD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직무 환경상 적극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찰공무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에 임하는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경찰청(2018)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전체 외래 환자 8,691명 중, 현직 경찰공무원의 방문은 805명(10.08%)에 그치고 있는 결과는 이 같은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참전유공자와 소방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과 상담요청에 관한 비교 연구의 결과에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담과 심리치료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8%로 나타났지만(김은진, 주희주, 이상흔, 2015),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이와 같이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라 하며(Kushner & Sher, 1991),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은 극단적인 자살과 같은 위기 상황만이 아닌, 일반적 상담 장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직무 특성상 여러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위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결정은 접근요인과 회피요인 간의 서로 상충적인 결과라고 하였다(Kushner & Sher, 1991). Vogel(2003)은 실제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접근요인의 설명 변량은 25% 미만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회피요인의 설명 변량은 35%에서 40%로 보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빈번히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닌 경찰공무원이 왜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회피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그에 앞서 경찰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조직은 고유한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를 갖고 있는데,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특성에 대하여 Berkley(1974)는 위험성과 권력성,

그리고 불신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편가르기, 권위주의, 냉소주의, 보수주의로 구분하였다. 국내 조철옥(2012)의 연구에서는 폐쇄적 단합 문화와 보안 지상주의, 우월의식, 패배주의, 냉소주의로 구분하였고, 김상호(2004)의 연구에서는 우월주의, 남성 예찬주의, 복지부동과 권위주의, 동료 집단의 충성과 비밀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해 위계 문화가 가장 강조된 관료조직이라고 보고하였다. 장석헌과 이강훈(2007)의 연구에서도 경찰공무원은 위계문화가 가장 지배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이처럼 상명하복이 뚜렷한 수직적이고 비밀엄수의 경직된 분위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엄격하고, 청렴하며, 냉철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에 그에 따른 책임감과 직무에 대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개인 내적 심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계문화가 지배적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대인관계적 측면(interpersonal aspects)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추구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나약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설사 자신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엄정혜, 김은혜, 백지명, 한나리, 조민아, 2016). 자신의 강함과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처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완벽주의(Perfectionism)란 결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Flett & Hewitt, 2002)하며 이 같은 완벽주의 성격이 대인 관계적,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라 한다(Hewitt et

al., 2003).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열등함을 치부로 간주하고 완벽함을 이상적으로 여기며 개인에게 보다 더 완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이정숙, 조성호, 2011; 채민성, 2016), 완벽함은 개인의 특성이며 능력의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Burns, 198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원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의 자신과 괴리가 크고 지나치게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김남재, 2004; 하정희, 201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개인은 심리적 부적응과 고통이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Ey, Henning, & Shaw, 2000; Hewitt et al., 2003). 또한, 자신의 불완전함을 치료자에게 보여주기 어려워하기 때문에(Ey et al., 2000), 치료동맹에 어려움을 갖고(Hewitt et al., 2003),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정이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성역할 갈등을 제안하고 연구 대상을 남성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경찰공무원 조직 문화에 대해 연구한 김성언(2007)은 남성지배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군대와 경찰조직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관념을 제시하였으며, 남성다움의 숭배와 성역할에 대한 차별주의와 직무에 따른 물리력 행사 등이 조직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유석(2013)의 연구에서는 남성주의에 따른 경찰의 성역할 고정관념(Stereotype of sex Role)이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무차별과 남성우월주의의 과시로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성역할 규범을 준수해야 사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였으며(박수애, 조은경, 2002), 여성 경찰 공무원과의 근무를 기피하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희망 근무 부서와 여성 경찰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무가 ‘수사·형사’과로 동일하였다(이상열, 신현기, 2009). 이는 경찰공무원의 남성지배적 성향의 조직 특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Keane, Zimering, & Caddell(1985)은 남성성을 중시하는 조직이나 그 문화에 속한 이들은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감정표현을 지지받지 못하여 외상 사건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남성지배적인 조직의 특성과 외상 사건 경험의 노출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남성 경찰공무원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성역할 갈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성역할은 사회에서 형성된 이상적인 남성다운 또는 이상적인 여성다운 모습에 부합하는 행동들로, 남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 같은 성역할 행동에 관한 사회적 기준, 기대와 규범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내면화된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리상태를 성역할 갈등이라고 한다(O’Neil, 1981a). 성역할 갈등은 대인관계와 개인 내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erger, Levant, McMillam, Kelleher와 Sellers(2005)는 남성들의 높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성역할 갈등에 연관이 있으며, 이를 높게 지각하는 남성은 상담과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남성상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역할 규범을 위반했을 때의 외부적 시선과 같은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Möller-Leimkühler, 2002). 실제로도 도움추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명확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2005; Möller-Leimkühler,

2002). 경찰공무원의 공적인 이미지는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강인함과 같이 '남자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힘, 권위를 중시하는 경찰공무원 조직문화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남성 경찰공무원으로 대상의 성별을 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들의 성역할 갈등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빈번히 다뤄지고 있는 자기낙인에 대한 변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은진 등(2015)은 참전유공자와 소방관, 경찰공무원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상담요청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경찰공무원 집단에서 상담요청에 대한 회피요인으로 '비밀보장과 낙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방식은 '직접 전문상담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을 희망하였고,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 사유로는 상담 내용에 대한 '적절한 상담 기관 부재'와 '비밀보장 우려', '주위 시선 부담'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PTSD 호소 대상 중, 경찰공무원이 타 집단에 비해 비밀보장과 낙인에 대한 염려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자기낙인이 회피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Corrigan(2004)는 낙인이란 개인의 특성 또는 행동으로 인해 그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주변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낙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으로 구분했다. 사회적 낙인이란 타인이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사회적 낙인이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자기 스스로 열등하고 부적절하게 지각하는 것을 자기낙인이라고 정의했다. 안수정(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보다 자아(self)에 영향을 미치

는 자기낙인이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도움추구 태도를 더 많이 예측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Vogel, Wade와 Haake(2006)은 자기낙인에 대해 타인에게 심리적 도움을 구할 때, 자신을 부적절하고 나약하다고 지각함에 따라 자기가치감이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내담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담에서 했던 자신의 이야기가 조직으로 전해지고, 상담 내용이 인사 기록에 남아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상담하기를 꺼려하며(진경미, 권경인, 2015; Carroll, 2010), 자기낙인이 도움추구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Vogel, Wade, & Hackler, 2007)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황연미(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보다 자기낙인을 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간접 외상 경험 사건 노출 빈도와 외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및 PTSD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남성 경찰공무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들이 직무에서 경험하는 돌발적인 스트레스 상황 또는 PTSD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성 경찰공무원의 건강한 심리 방역에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남성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으로 선정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어떠한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 사건과 PTSD 관련 연구들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제언은 많았으나, 이들이 실제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 직접적인 회피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남성

경찰공무원들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접근 방향성과 치료 개입을 제시하여,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경찰공무원의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과 PTSD 수준을 조사하여 직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경찰공무원의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 PTSD 수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과 PTSD 수준이 남성 경찰공무원의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외상 사건을 경험한 남성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외상 사건(Traumatic Event)과 PTSD

가. 외상 사건의 개념

외상 사건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경험을 벗어난 사건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저하게 느끼는 스트레스 사건이라 DSM-Ⅲ-R(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정의하고 있다(APA, 1987). 그러나 이후 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나 폭력 등에 대한 피해와 같은 다소 심각성이 떨어지는 반복적인 사건들에서도 PTSD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Breslau et al., 1998). 최혜경(2010)의 연구에서 이는 심각한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목격한 사건 역시 외상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외상 사건 개념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상 사건은 개인이나 타인에게 죽음과 죽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해와 사건들을 경험, 또는 목격할 때 그로 인해 충격과 공포, 두려움, 무력감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DSM-Ⅳ(APA, 1994)에서 재정의 되었다. 한편 DSM-V(APA, 2013)에서는 심각한 부상 또는 죽음, 성폭력 이외에 직업적으로 혐오적인 외상에 반복 노출되는 경험 또는 외상사건이 추가되어, 외상사건의 범주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반복적인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현장 응급구조 실무자의 직무 영역 또한 외상 사건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이수정, 2014).

이상현(2013)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을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대해

활용할 수 없다는 인지적 판단으로부터 실질적인 죽음 또는 위협에 관하여 일상적 대처능력의 무력감과 상실이 심리적 충격과 고통 등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라 외상 사건의 개념을 확장해 접근하고,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라 외상 사건을 분류하였다.

<표 1> 외상 사건(Traumatic Event)의 유형

구분		외상 사건의 종류
직접성	직접	가정폭력, 전쟁, 인질, 폭력, 강간
	간접	직접 목격, 사건에 대한 증언 듣기
대인관계	관계 내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관계 외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안전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반복성	단순	강도, 교통사고
	복합	가정폭력을 목격한 어린이, 성적학대
사건주체	개인	개인에 의한 외상
	국가	국가 폭력에 의한 외상

주. 출처: 이상현(2013), p. 193.

나. PTSD의 개념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신적 · 신체적 증상들을 가리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 한다(APA, 1994). 다시 말해, 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이다.

PTSD는 미국 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된 분류 및 진단 절차인 DSM-Ⅱ(APA, 1980)에서 최초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인식되었으며, 이후 외상과 관련된 장애의 연구가 증가하면서, DSM-Ⅲ-R(APA, 1987)에서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 범위를 넘어선 사건들'로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이선미, 은헌정, 1999). DSM-Ⅳ(1994, APA)에는 진단 기준 A의 외상 사건을 자신의 직접적인 외상 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동반하는 경우로 외상 경험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다(이지영, 2007). 현재, PTSD의 진단기준으로 DSM-Ⅴ(2013, APA)가 사용된다. 여기에는 직업에서 오는 충격적이고, 기피 할 수밖에 없는 외상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한 경험과 그로 인한 장애가 동반되는 등의 정신적 문제가 추가되었으며 DSM-Ⅴ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PTSD의 DSM-Ⅴ 진단 기준

A. 실제적 혹은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인 폭력에 1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경험

1. 외사 사건 직접 경험
2. 외상 사건이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
3. 외상 사건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
4. 외상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내용에 반복적 혹은 극단적으로 노출 (전자매체, TV, 영화, 사진을 통한 것이 아님)

B. 외사 사건과 관련된 침투 증상이 1가지 이상 나타남

1. 외상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의 반복적, 침투적 경험
2. 외상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꿈의 반복적 경험
3. 외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해리 반응 (예: 플래시백)
4. 외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될 때마다 강렬한 심리적 고통의 경험
5. 외상 사건을 상징 또는 유사한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대한 심각한 생리적 반응

C.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 회피가 1가지 이상 방식으로 지속적 나타남(외상 사건 후 시작)

1. 외상 사건과 밀접히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는 노력
2. 외상 사건과 밀접히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유발하는 외적 단서들(사람, 장소, 대화, 활동, 대상,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

D.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2가지 이상 나타남. (외상 사건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 가능)

1. 외상 사건의 중요 측면 기억하지 못함
2.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과장된 신념이나 기대를 지속적으로 지님
3.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왜곡된 인지, 이러한 인지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
4. 부정적 정서 상태(예: 공포, 분노, 죄책감, 수치심)가 지속적 나타남
5. 중요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현저히 감소
6. 타인에 대한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낌
7. 긍정 정서(예: 행복감, 만족, 사랑 감정)를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함

E. 외상 사건과 관련하여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2가지 이상 나타남(외상 사건 후 시작 또는 악화 가능)

1. (자극 없는 상태,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스러운 행동, 분노 폭발
2.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3. 과도한 경계
4. 과도한 놀람 반응
5. 집중의 곤란
6. 수면 장애

F. 위에 제시된 (B, C, D, E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해가 1개월 이상 나타남

G. 이러한 장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중요한 기능에 현저한 손상이 나타남

H. 이러한 장해는 약물이나 신체적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

주. 청소년, 성인 진단 기준

주. 출처: 권석만(2003), p. 231.

범은애(2017)의 연구에서 DSM-V 진단 기준 중, PTSD 주요 증상 가운데, 재경험 증상은 사건의 불수의적, 반복적,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과 해리성 반응, 그리고 사건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외부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과 극심한 장기적 심리적 고통과 같은 증상을 말한다. 소방방재청(2011)에서는 PTSD의 주요 증상을 불안, 우울, 강박, 공황 장애, 공격성, 환각, 환청, 환시, 재경험, 폭행, 자해, 자살시도 등 PTSD의 3가지 하위영역인 회피, 침습, 과각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PTSD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수년이 지난 후 다른 외상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의 다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예를 들면 “이혼이나 가족의 죽음, 실직 등의 스트레스 적응 장애가 발생 후 방치하면 PTSD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Breslau 등(1998)과 박재풍(2016)의 연구에서 모든 사람이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 하여 PTSD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 약 15 ~ 25%의 사람들만이 PTSD로 발전한다고 보고되었다.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완벽주의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를 알아보기 위해 학자마다 다른 척도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완벽주의가 갖는 핵심적 특징이라는 것은 다양한 입장으로 논했던 학자들과 선행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Hewitt, Flett, 1991). Flett, Panico와 Hewitt(2011)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상황에서 비현실적으로 내적 기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게 인정과 수용 받기 원하며, 긍정적인 인상으로 표현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Hobden과 Pliner(1995)의 완벽주의와 자기제시 경향성 간의 높은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상황에서의 체면 유지(face-saving)와 자기 불구화(self-handicapping)의 전략으로 자기보호(self-protective)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타인이 자신의 결점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여 독특한 제시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 특성에 대한 부족한 설명을 인식하여,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개념’을 제안하며, 사회적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높아진 자기제시 동기가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 하는 개인의 표현적 욕구라고 하였다. 이는 타인에게 비쳐질 자신의 인상까지도 의도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적 측면의 표현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완벽주의는 특성적 완벽주의로서, 개인의 성격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need to be perfect)’를 말하는 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대인관계에서 표현되는 행동에 중점을 두어 ‘완벽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need to appear perfect)'를 말한다(Hewitt et al., 2003). 국내 하정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결함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한 두려움을 느끼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자 하는 은폐성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하여 3가지 하위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과, '불완전함 은폐-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그리고 '불완전함 은폐-언어적'(Non enclosure of Imperfection)로 구분하였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함을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존경받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 '불완전함 은폐-행동적'은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결점이나 흠이 될 만한 행동을 숨기거나 그 상황 자체에 대해 회피하려 하는 경향이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여 평가나, 자신의 결점, 실패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셋째,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요인은 자신의 실수, 무능력들을 공적인 상황에서 타인에게 인정, 또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다. 부정적 평가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에 민감해 부정적 감정을 겪지 않으려 자신의 실수와 결점이 거론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Flett, Hewitt, & DeRosa, 1996).

3. 성역할 갈등

가. 성역할

성역할 갈등이 구체적으로 개념화되기 전, 남성에 대한 이해는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통적 남성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O'Neil(1981a)은 성역할(gender role)을 개인이 속한 사회 · 문화 안에서 이상적인 남성 및 여성다운 모습, 즉 각자의 성에 맞는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규범 및 기준, 기대를 내재화한 남성과 여성의 행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였다(박경 등, 2008; O'Neil, 1981a, 1981b).

성역할의 발달에 관하여 박경 등(2008)은 생물유전학적으로 성별에 따른 특성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들이 갖는 사회 문화가 성향에 영향을 주기에 문화인류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성역할 동일시가 일어나며, 성 정체감을 알게 되는 발달 시기의 관점인 인지발달론적으로 차이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 성역할을 학습하는 사회학습론적 관점과, 생애발달이론적의 6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 성역할 갈등

O'Neil(1981b)는 남성성(masculinity)의 관점에서 남성의 성역할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행동과 기대, 역할에 대해 의미하고 있으며, 남성 개개인의 행동으로 구체화했다. 남성의 성역할은 논리적 사고, 위험 감수, 문제

해결 중심적, 독립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Levant, 1992). 사람은 성장하며 개인의 성역할을 내재화하는데 이를 성역할 사회화(gender role socialization)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울면 안된다는 식으로 사회적인 학습을 하고(Hartley, 1976), 이 같은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남성의 성역할은 쉽게 위반할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여겨지기도 한다(Levant, 1992). 이런 이유로 남성의 성역할은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O'Neil(1981b)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성의 성역할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이 내재화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 상태를 성역할 갈등이라 하였다.

또한, 남성의 심리적 문제를 예측하는 중요 변수인 성역할 갈등(male gender role conflict)에 대해 개인적 성공과 타인에 대한 통제, 권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 남성들 간의 애정 표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일, 학업, 가족과의 요구 수준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정의하고 있다(Moradi, Tokar, Schaub, Jome, & Serna, 2000). 실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전통적인 남성상이 사회에 적응하는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남성 행동과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Good & Wood, 1995; Thompson, Pleck, & Ferrera, 1992).

4. 자기낙인

가. 낙인(Stigma)

낙인(Stigma)이란 개인의 특성과 행동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기준과 다를 때, 그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타인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Corrigan, 2004). 낙인은 개인의 기준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낮은 가치로 여겨져 평가절하나 고정관념, 차별적 꼬리표(labeling)나 지위의 손실 등을 포함했다(Link, Phelan, 2001).

도움추구와 관련된 연구에서의 낙인은 상담 및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낙인을 말하며, Vogel, Wade와 Hackler(2007)의 연구에서는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초기 의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전문적 도움추구의 치료적 개입의 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igan, 2004).

Vogel, Wade와 Haake(2006)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라 칭하면서, 전문적 도움 추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으로 정의하고,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게 내재화된 결과라고 구분하였다.

나. 자기낙인(Self Stigma)

Corrigan(2004)은 자기 낙인이란 타인에게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회가 지니는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내면화한 것으로 심리적 도움을 받으면,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 사회적 수용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며, 자기낙인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박준호, 서영석, 2009). 사회적 낙인이 타인에 의한 지각된 것인 반면, 자기낙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지각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Corrigan(2004)은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인식(awareness)하고, 동의(agreement)로 진행되며, 적용(application)하는 3단계로 개념화했다. 이는, 자기낙인은 자신에 대하여, 낙인찍힌 집단에 '동일시'하고 이에 관련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스스로에게 '적용'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Eisenberg, Downs, Golberstein, & Zivin, 2009). 다시 말해 자기낙인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낙인이 아니라 볼 수 있다. 장윤진(2012)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개념이 구분되는 것임을 밝히고,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은 서로 관련되나, 분리된 개념이라 구분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 낙인의 여러 부정적 결과들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자기 낙인은 희망(Lysaker, Roe, & Yanos, 2006), 자존감(Berge & Ranney, 2005), 자기효능감(Fung, Tsang, Corrigan, Lam, & Cheng, 2007), 삶의 질(Yen et al., 2009)등을 낮추며, 독립적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Lysaker, Roe, & Yanos, 2006).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 중에서도 특히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에 집중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낙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Lannin, Vogel, Brenner, & Tucker, 2015).

5.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Gourash(1978)는 도움추구(help-seeking)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감당하기에 어려운 사건과 상황을 접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노력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대상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종교인에서 의사나 심리 전문가 등이 있다. Gourash(1978)는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 적응에 대한 관점으로, 도움추구를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의 대처 전략으로 인식하였다. 일반적인 도움추구(general help seeking)와 구분한 전문적 도움추구(professional help seeking) 태도는 위기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불편함이 발생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거나 거절하는 개인의 경향성과 그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Fischer & Terner, 1970).

Fischer와 Terner(1970)는 어떤 이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진심으로 기대하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남숙경과 이상민(2012)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가에게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에 대한 개인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 경향성이라 정의하였다. Vogel, Wade와 Hackler(2007)는 다루기 힘든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 심리적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지지와 조언, 협조를 얻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러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어떠한 변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적 도움추구를 방해하는 요인인지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연구는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상담에 대한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갖고 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심리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 될 수 있다(Gourash, 1978; Kushner & Sher, 1991, Vogel & Wester, 2003).

Kushner와 Sher(1991)는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한 주요 변인들에 대하여 Miller(1944)의 고전적 접근-회피 갈등 이론을 적용해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상담과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요인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추구이며, 회피요인으로는 도움추구 태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치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비용 부담 등이 있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외에도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개방에 위험성이 높을수록 도움추구 태도는 낮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도움추구 태도에 있어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났으며, 노희순과 남숙경(2013)의 연구와, 이민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정경미와 신희천(2014)의 연구와, 제연화(2014)의 연구결과 남성의 성역할 갈등 역시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정수(2016), 노희순, 남숙경(2013)의 연구에서는 도움추구 태도와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불편감이 높으면 도움추구 태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신연희, 안현의, 2005).

1998년 ~ 2016년까지 KCI 등재지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중심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선행 요인에 관하여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2018)의 연구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선행 요인에 따른 분석 결과

No	구분	내용	영향
1	인구통계	여성이 남성보다	+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	+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	+
		수입이 많은 집단	+
2	개인적 특성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높을수록	-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	-
		완벽주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
		자기 은폐가 높을수록	-
3	사회문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으면	+
		수직적 개인주의 태도가 높으면	-
		청소년 남성 집단에서 심리적 불편감이 높으면	-
4	심리적 증상	우울이 높으면	-
		양가감정이 높으면	-

주.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접근요인(25%)과 회피요인(35~40%)들 가운데, 더 많은 설명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회피요인에 있다(Vogel & Wester, 2003).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회피요인이 접근요인보다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접근요인만으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피요인을 이해하는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Vogel, 2003).

Cremer(1999)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전문적인 도움추구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 정의하였다. 상담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을 이해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움추구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 이들의 회피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6. 각 변인 간 선행연구

가.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Traumatic Event)과 PTSD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은 개인이 사건 현장에 직접 참여 또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겪는 경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Carlier & Gersons, 1994; Clair, 2006). 국내에서 양경미, 오창홍, 박정환(2015)의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동료의 상실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믿음에 이상이 발생하는 사건을 외상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외상 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어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덜 영향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외상 사건을 자주 경험할수록 경찰공무원의 PTSD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낸다(Stephens & Long, 2000). 또한 곽대경, 김도우, 김미경(2011)의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외상 사건의 잦은 빈도와 충격이 높았을 때, 근무 기간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경찰공무원 직무 상,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외상사건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공상 및 사망 사고의 경우이며, 경찰공무원의 잦은 외상 사건은 이로 인해 PTSD로 사기 저하, 신체적 건강 악화와 조기 퇴직 및 이혼과 같은 가정 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원, 2012: Miller, 1996). 국내 선행 연구 가운데, 황인희(2009)의 연구 결과, 88.4%의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외상 사건을 경험했으며,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8%의 경찰공무원이 외상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PTSD와 관련된 많은 연구 가운데, Liberman et al.(2002)는 충격적 장면을 목격하거나, 잔혹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정서적인 고통

과 PTSD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13)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업 1위로 나타났으며,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경찰공무원의 자살자 수는 1,207명으로 9.5% 증가하였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충격적이며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직면 비율이 높아 외상 사건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나 수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기에 PTSD를 경험하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 PTSD에 관한 선행 연구 중,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는 27.5%, 이옥정(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40%, 이준희 외(2014)의 연구에서 외상을 경험한 41.1%의 경찰공무원이 PTSD를 나타냈으며, 경찰공무원의 PTSD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옥정, 2010). 또한, Rogehr, Hill, Kott, & Sailt(2003)의 연구 결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마비반응과 회피반응이 유의미했으며, 외상 사건의 노출 기간과 관련해 신입 인력보다 장기간 노출된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직업적 특성 상 강도 높은 위험 현장과 극심한 외상 사건의 경험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TSD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강훈과 문준섭(2014)의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외상 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PTSD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한보람, 김정규, 2014; 김종길, 2012). 신성원(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42.1%가 PTSD 증상을 보고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PTSD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은 순직보다 3 ~ 8배 높고, 전체 인구의 자살률 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 대비 알코올 중독율과 이혼율도 높다는 결과가 있다(Disease risk and mortality

among police officers, 1986). 이처럼 경찰공무원의 PTSD는 우울, 불안과 그로 인한 음주와 이혼, 자살 등의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도움추구 태도와의 연구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은폐해 우울과 불안, 사회적 단절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sser, Flett, & Hewitt, 2010; Sherry, Hewitt, Flett, Lee-Baggley, & Hall, 2007. 남유진,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Flett와 Hewitt(2014)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부인하거나 방어적이며, 자신의 완벽한 모습과 삶을 공개적으로 과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정희(2011)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으면 우울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정(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 모습을 타인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기에 때문에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상담이나 심리 치료 상담자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면서도 상담자가 자신을 싫어할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에 상담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지각하며, 자기 보호적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보고하였다(Hewitt 등, 2003). 이는 하정희(2010)의 연구 결과로 나타난

치료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다. 성역할 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있어 상담을 이용하는 수준의 성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성역할 갈등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lls & Depaulo, 1991). 남성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할 때 타인에게 이를 개방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봤으며(Good & Wood, 1995),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erger, Levent, McMillan, Kelleher & Sellers, 2005). 기본적으로 자기 개방이 이뤄져야 하는 상담에서 자신의 취약한 감정과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며(Komiya, Good, & Sherrod, 2000),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이다(유성경, 2005). 더욱이 동양 남성들의 경우, 서양 남성에 비해 강하게 내면화된 남성성과 수치심 같은 감정을 억제하며(William & Derek, 2006), 남자답지 못하다는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냈을 때 오는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거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회피한다(최명식, 1995; Corrigan, 2004). Levinson(1978)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은 친밀감과 정서적인 유대를 두려워하여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안수정(2017)의 연구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규범을 고수해 온 이들은 위기 상황을 마주할 때,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에 상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년 남성 집단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서비스 갭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 중 하나이며(Nam, Choi & Lee, 2015), 성역할 갈등이 높으면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했다(제연화, 2014; 정경미, 신희천, 2014). 이로써 남성 집단이 느끼는 성역할 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 자기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 중 자주 다뤄지는 변인은 낙인이다. 자기낙인을 측정하는 척도를 Vogel과 동료들(2006)이 개발한 이후부터 자기낙인과 관련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집중되어 보고되고 있다.

Vogel, Wade와 Hackler(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낙인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낙인이 높을수록 자기낙인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정진철, 양난미(2010)와 Corrigan (2004)의 연구 결과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지, 손은정(200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박준호와 서영석(2009)의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내재화된 낙인 모델(internalized stigma model)에서 자존감을 낮추고, 전문적 도움추구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Lannin, Vogel, Brenner & Tucker, 2015) 자기낙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Bampi, 2013; Topkaya, 2014; Lannin, Vogel, Brenner, & Tucker, 2015), Vogel 등(2007)의 연구에서도 남자에게서 자기낙인이 더 높게 나타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높은(경찰청 통계연보, 2018기준) 경기 A지역의 남성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경기 A지역의 경찰서와 지구대를 방문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5일 간에 걸쳐 96%의 회수율, 총 192부가 회수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같은 기간 온라인 설문을 함께 실시하여 78부가 응답하였으며, 그 중 일괄적인 응답, 무응답한 척도 및 문항의 누락 등 불성실한 12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가. 외상 사건(Traumatic Event) 경험 척도

외상 사건 경험 변수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수와 외상 사건 경험 충격의 하위항목이며 양적, 질적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Thomas-Riddle(2000)가 외상 사건의 측정을 위해 33개 문항으로 이뤄진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을 개발하고 이를 신성원(2007)이 번안하여 23문항을 한국 경찰 조직의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를 기초하여 이옥정(2010)이 다시 경찰 조직의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한다. 이옥정(2010)은 원 척도의 직무 사건 목록과 신성원(2007)이 번안한 직무 사건 목록을 재비교하여 원 척도의 의미와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직무 사건

에 대한 목록은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외상 사건 9문항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접 경험의 사건 14문항으로 총 23개의 직·간접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문항 중, 조사대상자가 경험했다고 표시한 외상 사건의 개수를 모두 합하여 외상 사건의 경험수를 측정하고, 외상 사건의 누적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험한 외상 사건들에 대해 각각 기록한 충격들을 모두 합한 후, 경험한 외상 사건의 개수로 나누어 외상 사건의 충격을 측정하며 외상 사건 경험의 충격 정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없다, 5=매우 심했다)로 평정한다. 예를 들면,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라는 문항에 대한 경험 유무를 확인하고, 경험이 있을 시,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전혀 없다(1점)', '별로 없었다(2점)', '보통(3점)', '심했다(4점)', '매우 심했다(5점)'로 구분하여, 직·간접 외상 사건의 누적된 영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Clair,2006).

본 척도에는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척도의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척도 Cronbach's α는 .9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이다.

<표 4> 외상 경험 질문지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직접 외상 사건	1 ~ 9번 문항	9	.89
간접 외상 사건	10 ~ 23번 문항	14	.93
전체		23	.95

나. 사건 충격(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PTSD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 Revised : IES-R-K)를 사용하였다. 외상 사건에 따른 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본 척도는 Horowitz(1979)가 개발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은헌정 외(2005)가 IES-R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한국어판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IES-R-K)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정된 수정판(IES-R -K)을 사용하였다. 이는 원척도의 하위요인이 침습 및 회피 증상에서 과각성 2문항이 추가되어, 과각성 6문항, 회피 8문항, 침습 8문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경험한 회상 사건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증상을 Likert 5점 척도(0=없다, 4=많이 있다)로 평정한다.

원 척도는 지난 1주일 간 경험한 증상에 관해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DSM-IV에서 PTSD 진단 기준을 증상 지속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로 제시하였기에(김자혜, 2012; 이옥정, 2010; APA, 1994) 본 연구에서도 지난 1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점 이상~24점에 해당하는 저위험 PTSD 집단과 25점 이상 고위험 PTSD 집단을 합쳐 위험군으로 명명하였으며, 17점 이하의 일반군과의 비교를 실시해 보았다.

본 척도에는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척도의 하위요인 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은헌정 외(2005)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7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97이다.

<표 5> 사건 충격 척도의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과각성	4, 10, 15, 18, 19, 21	6	.91
회피	5, 7, 8, 11, 12, 13, 17, 22	8	.93
침습	1, 2, 3, 6, 9, 14, 16, 20	8	.94
전체		22	.97

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K) 척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 등(2003)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를 개발하고 이를 하정희(2011)가 우리나라 문화에 맞도록 문항을 재구성하고 추가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완벽주의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총 19문항으로 Likert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측정된다. 하정희(2011)의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는 .85였고, 각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88,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75,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75였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역문항 정보 및 하위 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1, 8, 9, 12, 15, 16, 18, 19	8	.91
불완전함 은폐노력 - 행동적	4, 6, 7, 10*, 17	5	.78
불완전함 은폐노력 - 언어적	2, 3, 5, 11, 13, 14	6	.80
전체		19	.92

주. * 역문항

라. 성역할 갈등(Korean Masculine Gender Role Conflict Scale: K-MGRCK) 척도

남성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O'Neil의 성역할 갈등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GRCS(Gender Role Conflict Scale: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지현, 황매향과 유정이(2003)가 타당화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수연, 김인수, 김지현, 김진아(2012)가 한국 문화에 적합한 요인을 보완하고 편의성을 위해 구성된 축약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수연, 김인수, 김지현, 김진아(2012)의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 축약형(Korean Masculine Gender Role Conflict Scale: K-MGRCK)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모든 문항의 점수 합이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표 7>와 같다.

<표 7> 성역할 갈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요인명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성역할 갈등	전체	12	.85

마. 자기낙인(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SSOSH) 척도

Vogel과 동료들(2006)이 개발하고 윤지영(2007)이 번안한 도움 추구에 대한 자기 낙인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며, 2, 4, 5, 7,9 번 5개의 문항이 역채점 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다)로 평정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낙인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로 <표 8>와 같다.

<표 8> 자기낙인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요인명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낙인	1, 2*, 3, 4*, 5*, 6, 7*, 8, 9*, 10	10	.76

주. * 역문항

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 ATSPPH-SF) 척도

Fisher와 Turner(1970)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이후,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원척도의 4요인이 안정적이지 못해 2요인 10문항으로 개발한 단축형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 ATSPPH-SF) 척도이다(Fischer & Farina, 1995). 국내에서는 남숙경(2010)이 타당화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는 '긍정태도와 필요성' 5문항과, 역문항인 '부정태도와 불필요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이다.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남숙경(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역문항 정보 및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9>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상담에 대한 긍정태도와 필요성	1, 3, 5, 6, 7	5	.83
상담에 대한 부정태도와 필요성	2*, 4*, 8*, 9*, 10*	5	.64
전체		10	.77

주. * 역문항

3. 자료 분석

설문 조사를 거쳐 수합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별 Ch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PTSD 일반군과 위험군 각각에서 전문적 도움을 얻기 위한 심리상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상 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이 연구 대상자들의 직급과 근무부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경기 A 지역의 남성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3월 1일 연구자가 직접 경기 A 지역의 경찰서와 지구대를 방문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5일 간에 걸쳐 96%의 회수율, 총 192부가 회수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온라인 설문을 함께 실시하여 78부가 응답하였으며, 그 중 일괄적인 응답, 무응답한 척도 및 문항의 누락 등 불성실한 12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표 10>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20대는 8.9%, 30대는 37.2%, 40대는 22.9%, 50대 이상은 31.0%로 나타났으며, 결혼 유무의 경우, 미혼이 26%, 기혼이 73.3%의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계급 분포를 살펴보면, 순경이 54명(20.9%), 경장 48명(18.6%), 경사가 47명(18.2%)이었으며, 경위가 95명(36.8%)로 가장 많았으며, 경감은 14명(5.4%)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입직 경로는 순경 공채가 95.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안수요가 높은 1급서 소속이 연구 대상자들의 95.3%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근무부서는 과학수사대가 6명(2.3%), 형사·수사는 32명(12.4%), 경찰청 또는 경찰서 내근이 29명(11.2%), 지구대·파출소가 168명(65.1%)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설문에서 경찰공무원 재직 총 근무 기간 외에 외상 사건 경험이 높은 외근 부서의 근무 경력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이에 105명(40.7%)이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56명(21.7%)이 6년 ~ 10년 미만, 11년 ~ 15년 미만이 27명(10.5%), 16년 ~ 20년 미만이 31명(12%)이었다. 21년 ~ 25년 미만이 15명(5.8%),

26년 ~ 30년 미만이 23명(8.9%)으로 표기되었으며, 31년 ~ 35년 미만의 근무경력자도 1명(0.4%)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하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수는 60명(23.3%), 대체로 건강하다가 129명(50%)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 44명(17.1%), 약간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명(8.9%)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단 12%만이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분포 (N=258)

변인	범주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23	8.9
	30대	96	37.2
	40대	59	22.9
	50대이상	80	31.0
결혼상태	미혼	67	26.0
	기혼	189	73.3
	사별	0	0
	별거	0	0
	이혼	2	.8
	기타	0	0
학력	고졸	63	24.4
	전문대졸	31	12.0
	대졸	158	61.2
	대학원졸	6	2.3
계급	순경	54	20.9
	경장	48	18.6
	경사	47	18.2
	경위	95	36.8
	경감	14	5.4
	경정	0	0
	총경	0	0

입직경로	순경공채	246	95.3
	순경-경사특채	10	3.9
	경찰대학	1	.4
	고시특채	0	0
	기타	1	.4
소속급서	1급서	246	95.3
	2급서	7	2.7
	3급서	5	1.9
	4급서	0	0
근무부서	과학수사대	6	2.3
	형사·수사	32	12.4
	지구대·파출소	168	65.1
	경기지방경찰청 또는 내근	29	11.2
	기타	23	8.9
총 근무 년수	1-5년	79	30.6
	6-10년	55	21.3
	11-15년	25	9.7
	16-20년	20	7.8
	21-25년	21	8.1
	26-30년	46	17.8
	31-35년	12	4.7
외근부서 근무년수	0-5년	105	40.7
	6-10년	56	21.7
	11-15년	27	10.5
	16-20년	31	12.0
	21-25년	15	5.8
	26-30년	23	8.9
	31-35년	1	.4
건강상태	매우 건강	60	23.3
	대체로 건강	129	50.0
	보통	44	17.1
	약간의 질병 보유	23	8.9
	심각한 질병 보유	2	.8
심리상담 경험여부	있다	31	12.0
	없다	227	88.0
	합계	258	100.0

2.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먼저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각 연구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연구 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70～.64, 첨도는 -.22～1.86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절대값 기준 왜도<2, 첨도<7)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의 평균은 3.36이며, 표준편차는 .76으로 나타났다.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은 3.34이며, 표준편차는 .81로 나타났다.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은 3.41이며, 표준편차는 .78로 나타나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보다 높았다.

PTSD 수준의 평균은 17.91이며 표준편차는 14.63으로 나타났다. PTSD 수준을 측정하는 점수의 범위는 17점 이하까지 일반군으로 분류되며, 18점 ~ 24점까지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25점 이상의 점수는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평균은 4.38이며, 표준편차는 .88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갈등의 평균은 2.86이며, 표준편차는 .68로 나타났다. 자기낙인의 평균은 2.54이며, 표준편차는 .49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평균은 2.75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38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1>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258)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외상 경험 스트레스 강도	전체	1.00	5.00	3.36	.76	-.70	.79
	직접	1.00	5.00	3.34	.81	-.27	-.08
	간접	1.00	5.00	3.41	.78	-.70	.74
PTSD 수준		0.00	66.00	17.91	14.63	.64	-.2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32	6.79	4.38	.88	-.47	.82
성역할 갈등		1.00	4.42	2.86	.68	-.44	-.01
자기낙인		1.00	3.60	2.54	.49	-.58	.13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1.00	4.00	2.75	.38	.25	1.86

3.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경험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외상 사건 경험 질문지의 응답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직접, 간접, 그리고 전체적인 외상 사건 경험 빈도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고, 외상 사건 경험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와 비율을 확인한 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회라도 외상 사건 경험이 있는 총 255명에 대하여 각 문항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의 전체 응답자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기하였다. 외상 스트레스 사건 경험 빈도의 기술통계량을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응답자 1명 당 평균 11.07개(표준편차 5.76)의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외상 사건의 경우 응답자 1인당 평균 3.21개(표준편차 2.46), 간접 외상 사건의 경우 응답자 1인당 7.86(3.70)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외상 스트레스 사건 경험 빈도의 기술통계량 (N=255)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외상 사건 경험의 수	전체	0.00	23.00	11.07	5.76
	직접	0.00	9.00	3.21	2.46
	간접	0.00	14.00	7.86	3.70

이어서 외상 경험 질문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문항 별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많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 경험 응답 빈도가 많은 순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것에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95.7%에 해당하는 247명이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는 3.26점이었다. 이어서 근무 중 사체를 목격하였다는 응답은 244명으로 전체의 94.6%가 경험하였으며 스트레스 강도는 3.65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세 번째로는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한 사건으로 전체 응답자의 73.3%에 해당하는 189명이 경험하였으며, 스트레스 강도는 3.70점으로 역시 높은 편에 속했다. 다음은 근무 중 타인에게(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68.6%인 177명이 경험하였고, 스트레스 강도는 3.29점이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경험한 외상 사건은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67.8%인 175명이 경험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는 3.53점이었다. 이 중 직접 외상 스트레스 사건은'근무 중 타인에게(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 경험 1가지였으며, 나머지 4가지는 모두 간접 외상 스트레스 사건이었다.

외상 경험에 뒤따르는 스트레스 강도만을 기준으로 보면,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사망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료 경찰과의 자살이 3.91점, 근무 중 살해당한 사람 목격이 3.73점,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 목격하는 것이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받거나 방임된 어린이 목격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간접 외상 스트레스 사건이었다.

<표 13> 응답자들의 외상 경험 빈도 및 스트레스 강도 평균값 (N=255)

구분	외상 사건	유경험 빈도	유경험 비율	스트레스 강도 M	스트레스 강도 SD
간접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247**	**95.7**	3.26	.91
간접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를 목격하였다.	**244**	**94.6**	3.65	1.02
간접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했다.	**189**	**73.3**	**3.70**	.89
직접	근무 중 타인에게(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177**	**68.6**	3.29	.92
간접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175**	**67.8**	3.53	.74
간접	자연재해(수해, 산불 등)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173	67.1	3.28	.96
간접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165	64.0	3.65	.82
직접	고속의 차량 추격전을 경험하였다.	162	62.8	3.42	.96
간접	학대 받거나 방임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151	58.5	**3.67**	.78
간접	강간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141	54.7	3.45	.90
간접	인재(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141	54.7	3.43	.97
직접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135	52.3	3.46	.95
간접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을 목격하였다.	113	43.8	**3.73**	.98

간접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	82	31.8	**3.91**	.91
간접	납치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82	31.8	3.34	.89
직접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	74	28.7	3.62	1.04
간접	성폭행 당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70	27.1	3.64	.93
직접	위험한 영장을 집행하였다.	69	26.7	3.45	.88
직접	근무 중 심각한 차량사고(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한)를 경험하였다.	69	26.7	3.45	.87
직접	근무 중(흉기에 의하지 않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62	24.0	3.66	1.07
간접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54	20.9	**3.98**	1.04
직접	근무 중 타인에게 총격 및 총기를 겨누었다.	42	16.3	3.24	1.12
직접	근무 중 흉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39	15.1	3.38	1.11

주. 스트레스 강도의 만점은 5점

4. 연구 대상자들의 상담 경험 여부

다음으로 사건충격 척도의 준거를 기준으로 구분한 PTSD 일반군과 위험군 각각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심리 상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따른 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한 한국어판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IES-R-K)의 진단 기준으로 18점 이상 ~ 24점에 해당하는 저위험 PTSD 집단과 25점 이상 고위험 PTSD 집단을 합쳐 PTSD 위험군으로 명명하였고, 17점 이하의 PTSD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일반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담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58명 중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명(12.0%)으로 나타났다. PTSD의 일반군과 위험군을 구분하여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TSD 일반군 134명 중 12명(8.95%), 전체 4.7%로 나타났다. PTSD 위험군은 124명 중 19명(15.3%), 전체 7.3%로 나타났다.

<표 14> 상담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N=258)

사건충격 집단	상담경험 여부		합계
	있다	없다	
PTSD 수준 (일반군)	12(8.95%) (4.7%)	122(91.05%) (47.3%)	134(100%) (52%)
PTSD 수준 (위험군)	19(15.3%) (7.3%)	105(84.7%) (40.7%)	124(100%) (48%)
전체	31 (12.0%)	227 (88.0%)	258 (100%)

5.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검증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라 외상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차이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가. 계급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먼저 계급에 따라 외상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았다. 독립변인은 계급으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경위, 경감) 등 4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외상경험 질문지를 통해 측정한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그리고 사건충격 척도를 통해 측정한 PTSD 수준 점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F=11.95$, $p<.001$) 및 직접($F=3.86$, $p<.05$), 간접($F=12.75$, $p<.001$) 외상 스트레스 강도, 그리고 PTSD 수준($F=9.37$, $p<.001$) 모두 계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에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PTSD 수준의 경우 모두 경장 이상(경장, 경사, 경위 이상) 계급의 점수가 순경의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경우 경장 계급과 경위 이상 계급의 점수가 순경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경사 계급의 점수는 타 계급의 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5> 계급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N=255)

종속변인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F(사후검증)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순경	54	2.89	.79	11.95*** (경장,경사,경위 이상>순경)
		경장	47	3.38	.59	
		경사	47	3.35	.91	
		경위이상	**107**	**3.60**	.62	
	직접	순경	24	2.88	.64	3.86* (경장,경위 이상>순경)
		경장	41	3.45	.78	
		경사	43	3.23	.96	
		경위이상	**102**	**3.45**	.75	
	간접	순경	54	2.92	.82	12.75*** (경장,경사,경위 이상>순경)
		경장	47	3.37	.56	
		경사	47	3.38	.94	
		경위이상	**107**	**3.67**	.63	
PTSD 수준		순경	54	9.72	12.18	9.37*** (경장,경사,경위 이상>순경)
		경장	48	17.31	15.22	
		경사	47	18.40	13.66	
		경위이상	**109**	**22.01**	14.32	

주. * p<.05, ** p<.01, *** p<.001

나.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다음으로 근무부서에 따라 외상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았다. 독립변인은 근무부서로 과학수사대 및 형사·수사, 지구대 및 파출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내근과 기타 등 3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외상 사건 경험 질문지를 통해 측정한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그리고 사건 충격 척도를 통해 측정한 PTSD 수준 점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F=3.89$, $p<.05$) 및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F=5.58$, $p<.00$)에서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비교쌍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경우 과학수사대, 형사,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점수가 그 밖의 부서(지구대, 파출소, 지방청, 경찰서 내근, 기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6> 근무부서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N=255)

종속변인		근무부서	N	평균	표준편차	F(사후검증)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과학수사대 / 형사·수사**	**36**	**3.61**	.64	3.89* (N.S.)
		지구대·파출소	167	3.28	.76	
		지방청, 경찰서 내근 및 기타	52	3.46	.79	
	직접	**과학수사대 / 형사·수사**	**32**	**3.76**	.75	5.58** (과학수사대/ 형사·수사> 지구대·파출소, 지방청·경철서 내근과 기타
		지구대·파출소	139	3.24	.80	
		지방청, 경찰서 내근 및 기타	39	3.34	.79	
	간접	**과학수사대 / 형사·수사**	**36**	**3.56**	.61	2.17
		지구대·파출소	167	3.33	.79	
		지방청, 경찰서 내근 및 기타	52	3.54	.82	
PTSD 수준		**과학수사대 / 형사·수사**	**38**	**20.03**	14.29	1.24
		지구대·파출소	168	18.22	15.18	
		지방청, 경찰서 내근 및 기타	52	15.35	12.85	

주. * p<.05, ** p<.01, *** p<.001

6.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다음으로 외상 사건 경험의 수, 외상성 스트레스 강도, 사건충격,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7>에 제시되었다.

먼저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는 PTSD 수준(r=.54, p<.0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31, p<.001), 성역할 갈등(r=.36, p<.001)과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으나 그 크기는 작은 수준이었으며(r=.15, p<.05), 자기낙인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PTSD 수준의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32, p<.001) 및 성역할 갈등(r=.40, p<.001)과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자기낙인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는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또한 성역할 갈등과는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56, p<.001), 자기낙인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성역할 갈등의 경우 자기낙인과 작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r=.29, p<.00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는 작은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13, p<.05),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36, p<.001).

<표 17> 연구 변인들 간의 person 상관계수 (N=255)

	1	2	3	4	5	6	7	8
1	1							
2	.86***	1						
3	.97***	.70***	1					
4	.54***	.43***	.54***	1				
5	.31***	.23**	.31***	.32***	1			
6	.36***	.22**	.36***	.40***	.56***	1		
7	-.02	-.05	-.20	.09	.06	.29***	1	
8	.15*	.24***	.13*	.10	-.05	-.13*	-.36***	1

주. * p<.05, ** p<.01, *** p<.001

주. 1 =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2 =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3 =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4 = PTSD 수준, 5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6 = 성역할 갈등, 7 = 자기낙인, 8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7.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이 전문적인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예측변인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 척도의 점수였으며, 준거변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의 점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계급을 함께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준거변인에 대한 계급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 회귀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9.91$, $p<.001$), 모형의 설명량은 14%로($R^2=.14$)나타났다. 투입된 예측변인 중에서는 자기낙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t=-5.85$, $p<.00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6$). 즉, 자기낙인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18>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각 변인의 표준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B	β	t		R^2	F
계급	.02	.07	1.00		.14	9.9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01	-.02	-.30			
성역할 갈등	-.03	-.05	-.59			
자기낙인	-.28	-.36	-5.85	***		

주. * p< .05, ** p < .01, *** p<.001

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경기 A 지역의 남성 경찰관 258명을 대상으로 과학수사대와 형사·수사, 지구대 및 파출소와 같이 외상 사건의 노출이 잦은 부서 위주로 자료(전체 조사대상자의 79.9%)를 수집하였다. 직·간접 외상 경험을 피할 수 없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 경험과 PTSD 수준을 알아보고자 했으며, 이들의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라 외상 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PTSD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추구하지 않는지에 대한 회피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사건의 경험은 PTSD를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 중 98.8%(255명)의 남성 경찰공무원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의 스트레스 강도를 비교했을 때, 직접 외상 사건 경험보다 간접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은 3.34,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은 3.41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95.7%의 응답자가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였고,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를 목격'한 응답자는 94.6%, 그 뒤를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한 응답이 전체의 73.3%로 나타나 전체 외상 사건 경험 가운데, 간접 외상 사건의 경험 빈도가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남성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외상 사건을 경험한 뒤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강도를

확인한 바,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사망’이 3.98점, ‘동료 경찰관의 자살’이 3.91점, ‘근무 중 살해당한 사람 목격’이 3.73 순으로 모두 간접 외상 사건으로 나타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겪을 수 있는 잦은 외상 사건들 가운데, 간접적인 외상 사건 노출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외상 사건 경험보다, 간접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연구 대상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며, 이들의 외상 경험으로 인한 PTSD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48%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상 간접적으로 외상 사건에 노출된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가 PTSD를 호소한다는 양경미(2013)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의 PTSD 위험군은 38.8%(신성원, 2007), 40%(이옥정, 2010), 42%(신성원, 2012)의 응답자가 PTSD 위험군으로 보고된 바, 경찰공무원의 직무 환경의 상시 노출되고 있는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찰공무원들이 외상 경험을 많이 할수록 PTSD 증상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한 한보람과 김정규(2014)의 선행 연구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의 직무 환경에서 오는 외상 경험과 그로 인한 PTSD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의 외상 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의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간접 외상 스트레스의 강도 및 PTSD 수준 모두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과학수사대 및 형사·수사’, ‘지구대 및 파출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내근과 기타’로 구분된 세 개의 집단에서 ‘과학수사대 및 형사·수사’ 근무부서 평균이 모두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직·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및 PTSD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 상,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의 노출이 누적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PTSD를 연구한 곽대경, 김도우, 김미경(2011)의 선행 연구에서도 반복적이며 오랜 시간 외상 사건에 노출 빈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PTSD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단 12%의 응답자만이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바, 누적된 PTSD를 해소하고 이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피로도와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참혹한 범죄 현장과 긴박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형사, 수사, 교통, 정보 등의 유관부서와 해당 계급 경찰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심리방역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남성 경찰공무원의 회피요인으로 예측되는 변인 3가지(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성역할 갈등은 남성 경찰공무원들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낙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회피요인으로 예측하였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김정윤(2019)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부적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김하정(2017)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정희(2010)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불완전한 은폐노력-언어적' 하위변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

을 보고하였다. 이 같이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이라는 특정 시기에 있는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자의식이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하정희, 2017)를 거친 대학생의 경우, 성숙한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의 연계선상에 있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성인보다 다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부적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승혜(2019)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기술통계 평균 점수는 83.6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평균 점수 산출 결과 또한, 83.22로 같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과 환경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 추후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함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 성역할 갈등은 Vogel과 Pederson(2007)의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은 남성은 상담 요청에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경미와 신희천(201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에 성역할 갈등과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에 있어 성역할 갈등이 부적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연화와 심은정(2015)의 선행연구에서도 높은 성역할 갈등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변지영(2019)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같이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관과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관하여 부정적인 일관된 결과들을 나타내어, 성역할 갈등이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 추구에 부정적임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찰 내 보수적인 조직문화 특수성의 영향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성역할 갈등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중간에 다른 매개 요인을 통하여 심리적 도움추구를 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변지영(2019)의 연구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남성은 성역할 갈등이 심하며 그로 인해 자기개방에 따르는 위험을 높게 예상하여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던 자기 낙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윤(2019), 김정수(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민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경찰공무원 집단이 참전유공자와 소방관보다 상담에 대한 회피요인으로 낙인이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은진, 주희주, 이상흔, 2015). 이는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보고하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약화시키는 회피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 경찰공무원에게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나타난 바, 경찰 조직 내 수내부의 자조적인 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 내에서 Top down 방식 등의 교육을 활용하며, 직무로 발생한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료와 상사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직무에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료 지지 프로그램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정 대상에게만 심리상담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경찰 조직 내 전체가 참여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으로의 확대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누적된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의 상담 전문기관과 조직적 이며,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및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경찰청은 2014년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에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한 '마음동행센터' 9개소를 운영 중이었으나, 2019년도에 각 지방청 별 1개소씩 추가하여, 현재 18개소로 확대 설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대 운영된 '마음행동센터'의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를 계기로 경찰공무원 조직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PTSD 위험 대상자들만이 아닌, 경찰공무원 전체가 PTSD가 유발될 수 있음을 조직 내에서 충분히 인정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 같은 외상 경험이 발생된 경우, 조기 검진과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남성 경찰공무원의 직·간접 외상 경험의 스트레스와 PTSD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누적된 PTSD를 해결할 수 있는 개입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잦은 외상 사건과 PTSD 유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 개입과 접근 방향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회피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이 높아질수록 외상 경험의 빈번한 노출은 PTSD 수준이 높아지며, 근무 부서에 따라 PTSD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및 각 지방청에서는 계급이 높은 직위의 경찰공무원 역시 적극적인 치료에 개입을 해야 하며, PTSD를 자각한 당사자도 타인의 평가에 좌우할 것이 아닌, PTSD가 현재의 상처에 더 깊어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직무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외상 사건 경험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원이나 휴무 혹은 타 업무로 인해 부족해진 인원만큼 남은 사람은 추가적인 업무와 지원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그만큼의 휴식이 제한되고, 피로감은 누적될 수 있다. 정작 PTSD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량과 스트레스 정도를 객관적인 정량조사와 경험적 증거를 통합하여, 부서 간 인원 조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경찰 조직 내 인력의 확보로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 배정에 관심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와 지방청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PTSD 위험군의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진단을 통해 확인된 PTSD 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외상 사건의 빈도수가 높은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1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PTSD 위험군의 수치가 48%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직무상 외상 사건 경험이 누적된 PTSD 위험군은 현장대처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PTSD의 반응으로 인해 현장 상황을 회피할 경우 사회적 문제와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가 되거나 고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치료를 위한 상담은 전체 12%로 나타났다. 그 중 PTSD 위험군은 7.3%만이 심리 상담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바, PTSD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인이 PTSD 경험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치료를 응하는 것과 비교하여, 현재의 PTSD 치료적 관심과 개입에 대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경찰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약한 남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위험한 순간이나 사건, 혐오적인 환경에선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조직 최고 수뇌부부터 자기낙인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Top down 방식의 교육과 생활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각 구성원의 개인적 인식 변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조직 자체의 변화가 없으면

PTSD 치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자기 낙인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감정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개인의 대처는 한계가 있음을 주지하고,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위험에 안정적이고 지금보다 나은 직무 수행과 향상된 삶을 위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집단 간 비교가 이뤄지지 않아, 이로 인해 남성 경찰공무원 전반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확대 및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공무원 부서 간 세분화된 대상군을 설정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 스트레스 강도와 PTSD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서는 과학수사대와 형사·수과로 나타났으나, 표집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대상군을 선택적으로 연구한다면 외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및 PTSD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경찰청 (2013). “경찰복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경찰청 (2018). 경찰통계연보,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5.jsp

경찰청 (2019).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 지원 확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647

곽대경, 김도우, 김미경 (2011). 경찰업무로 유발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3), 23-46.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남재 (2004).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간 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77-695.

김상호 (2004). 경찰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97-129.

김성언 (2007). 일탈적 태도의 유발요인으로서의 경찰 하위문화와 긴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 42-87.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 상담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의 선행요인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19**(1), 87-111

김은진, 주희주, 이상흔 (2015). 참전유공자, 경찰관,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와 상담요청. **장애요인국가위기관리학회보, 7**(1), 45-68

김자혜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증상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수 (2016). 대학생의 낙인,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추구태도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6**(3), 391-402.

김정윤 (2019).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길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6,** 31-54.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3), 25-41.

김하정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거절민감성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숙경 (2010).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구인타당도 재점검. **상담학연구, 11**(3), 1007-1020.

남숙경, 이상민 (201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집단간 차이 분석: 대상, 성별, 연령, 상담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1), 341-366.

남유진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관계: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충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노희순, 남숙경 (2013). 부모가 지각한 아동문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에서 사회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이득의 매개역할: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769-3784.

박경, 이희숙, 김선경, 고정애, 유춘자, 김혜경, 허정은 (2008). **「성심리와 성건강」.** 시그마프레스.

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77-103.

박승혜 (2019).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풍 (2016). 경찰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2), 71-98.

박재풍 (2016). 외상사건경험에 노출된 경찰관의 PTSD와 직무만족과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118.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범은애 (2017). 의경의 외상 사건 경험과 분노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6), **통권 32호** 567-577

변지영 (2019), 남성 성역할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우울과 자기개방 예상 위험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3), 443-463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2019 자살예방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소방기본법 (2011). 제 1장 1조

신성원 (2007).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성원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4), 237-260.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안수정 (2017).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갈등, 자기 낙인, 상담 태도,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중년의 위기감과 상

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29**(3), 629-657

양경미, 오창홍, 박정환 (2015).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16**(1), 116-128

엄정혜, 김은혜, 백지명, 한나리, 조민아 (2016).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어려움과 상담소 이용에 대한 개념도 연구: S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7**(1), 41-66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17-632

윤지영 (2007). **낙인, 자기은폐, 자기개방이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4**(3), 303-310.

이강훈, 문준섭 (2014).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47,** 105-129.

이도선 (2018).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4), 134-159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이상열, 신현기 (2009). 여자경찰관의 위상과 역할제고에 관한 연구: 신임 여겨교육생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치안행정논집, 6**(1), 1-24

이상현 (2013).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국가법연구학회: 국가법연구, 9**(1), 189-209

이선미, 은헌정 (1999).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8**(3), 501-513

이수연, 김인수,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2**(1), 5-33.

이수정 (2014).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소명의식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옥정 (2010).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외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2**(4), 173-203

이옥정, 지영환 (2010).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외근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2**(4), 173-203

이정숙, 조성호 (2011).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자기강화, 성공-실패경험의 매개역할. **학생생활상담, 29,** 35-58.

이준희, 김인아, 원종욱, 노재훈. (2014).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특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60-360.

이지영 (2007). **소방대원의 정서지능, 적극적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 임재호, 서수연 (2017).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149-176

임유석 (2013). **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갈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석헌, & 이강훈 (2007). 경찰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1), 43-64.

장윤진 (2012).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경미, 신희천 (2014).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자기공개기대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79-98.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제연화 (2014). **남성 성역할갈등과 자살성의 관계: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역할.**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연화, 심은정 (2015). 20/3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31-952.

조철옥 (2012).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진경미, 권경인 (2015). 기업체 종사자의 전문적 상담 추구 의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09-128.

채민성 (2016).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 시험불안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명식 (1995). **남성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 존중감과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혜경 (2010).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정희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265-280.

하정희 (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방어유형과 우울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21-941.

하정희 (201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PSPS-K) 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121-1140.

한보람, 김정규 (2014).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33**(3), 531-550.

황연미 (2009).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과 전문적 도움 추구와의 관계에서 자기낙인과 자기공개 기대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인희 (2009).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Disorders*(2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Disorders*(3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n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 C.: Autho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mpi, P. (2013). Relationship between stigma, gender, personality, stre ss,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Berge, M., & Ranney, M. (2005). Self-esteem and stigma among perso ns with schizophrenia: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are Man agement Journals, 6*(3), 139-144.

Berger, J. M., Levant, R., McMillan, K. K., Kelleher, W., & Sellers, A. (2005). Impact of Gender Role Conflict, Traditional Masculinity Ideology, Alexithymia, and Age on Men's Attitudes Toward Ps ychological Help Seeking.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6* (1), 73-78.

Berkley, G. E. (1974). The Democratic Policeman, MA: Beacom Press. Blumenstein, L., Fridell, L. & Jones, S. (2012). "The link betwe en traditional police sub-culture and police intimate partner viol en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5*(1), 147-164.

Besser, A., Flett, G. L., & Hewitt, P. L. (2010). Perfectionistic self pre sentation and trait perfectionism i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 ty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 ogy, 40*(8), 2121-2154.

Breslau, N., Kessler, R. C., Chilcoat, H. D., Schultz, L. R., Davis, G. C., & Andreski, P. (1998).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 r in the community: the 1996 Detroit Area Survey of Trauma.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7), 626-632.

Burns, D. D.(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 y today, 14*(6), 34-52.

Carlier, I., & Gersons, B. (1994). Trauma at work: Post-traumatic stres s disorder-an occupational health hazard. *Journal of Occupation al Health and Safety-Australia and New Zealand, 10*(3), 264-266.

Carroll, M. (2010). 기업상담. *(전종국, 왕은자, 심윤정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6에 출판).*

Clair, M.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32-125

Clair, M.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Doctoral dissertation, Dr exel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7*(06), 3443.

Corrigan, P.W.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 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 nseling Psychology, 46*(3), 381-387.

Eisenberg, D., Downs, M. F., Golberstein, E., & Zivin, K. (2009). Stigm a and help seeking for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66*(5), 522-541.

Ey, S., Henning, K. R., & Shaw, D. L. (2000). Attitudes and factors rel ated to seeking mental health treatment among medical and den t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4*(3), 23-39.

Fischer, E. H., & Farina, A. (1995).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 nal psychological help: A shortened form and consider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4), 368-

373.

Fischer, E. H., & Turner, J. I.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 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Fisher, E.h.,& Turner, J.L.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 rnal of Consulting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5 -31.

Flett, G. L., & Hewitt, P. L. (2014).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 lf-presentation in social anxiety: Implications for assessment an d treatment, In *Social Anxiety,* 159-187. Academic Press.

Flett, G. L., Hewitt, P. L., & De 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 ionism,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143-150.

Flett, G. L., Panico, T., & Hewitt, P. L. (2011). Perfectionism, type A b ehavior, and self-efficacy in depression and health symptoms a mong adolescents. *Current Psychology, 30*(2), 105-116.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 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Fung, K. M., Tsang, H. W., Corrigan, P. W., Lam, C. S., & Cheng, W. M. (2007). Measuring self-stigma of mental illness in China an d its implications for recover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3(5), 408-418.

Good, G. E., & Wood, P. K. (1995).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 n, and help seeking: Do college men face double jeopardy?. *Jou 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1), 70-75.

Gourash, N. (1978). Help-seek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5), 413-423

Hackett, D. P., & Violanti, J. M. (Eds.). (2003). *Police suicide: Tactics for prevention.* Charles C Thomas Publisher. 131

Hartley, R .E. (1976). Sex-role pressure sand the socialization of the m ale child. *The forty-nine percent majority: The male sex role, 5,* 235.

Hewitt, P. L., & Flett, G. L.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 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

Hewitt, P. L., Flett, G. L., Sherry, B. S., Habke, M., Parkin, M.,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 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 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 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Hobden, K., & Pliner, P. (1995). Self-handicapping and dimensions of p erfectionism: Self-presentation vs self-protection. *Journal of Re search in Personality, 29*(4), 461-474.

Horowitz, M. J., Wilner, N., and Alvarenz, W. (1979). Impact of even s 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Kenae, T. M. M., Zimering, R. T. M., & Caddell, J. M. (1985). A beha

vioral formul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etnam v eterans. *The Behavior Therapist, 8*(1), 9-12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 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38-143.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 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 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Lannin, D. G., Vogel, D. L., Brenner, R. E., & Tucker, J. R. (2015). Pre dicting self-esteem and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The inter nalized stigma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1), 64-93.

Levant, R. F. (1992). Toward the reconstruction of masculin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3), 379-402.

Levinson, D. J. (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전은 1978년에 출판).

Liberman, A. M., Best, S. R., Metzler, J., Fagan, J. A., Weiss, D. S., & Marmar, C. S.(2002), Routine occupational stress and psychologi cal distress in poli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 ce Strategies & Management, 25*(2), 421-439.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 iew of Sociology, 27*(1), 363-385.

Lysaker, P. H., Roe, D., & Yanos, P. T. (2006). Toward understanding the insight paradox: internalized stigma moderates the associati on between insight and social functioning, hope, and self-estee m among people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Schizop*

hrenia bulletin, 33(1), 192-199.

Miller, G. A. (1996). How we think about cognition, emotion, and biology in psychopathology. *Psychophysiology, 33*(6), 615 - 628.

Miller, N. E. (1944). Experimental studies of conflict. In J. M. Hunt (Ed.) *Personality and the behavior disorders, 431-465.* Oxford, England: Ronald Press.

Möller-Leimkühler, A. M. (2002). Barriers to help-seeking by men: A review of sociocultural and clinical literatur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1), 1-9.

Moradi, B., Tokar, D. M., Schaub, M. Jome, L. M., & Serna, G. S. (2000). Revisiting the structural validity of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1), 62-69.

Nam, S. K., Choi, S. I., & Lee, S. M. (2015). Effects of stigma-reducing conditions on intention to seek psychological help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anxious ambivalent attachment. *Psychological Services, 12*(2), 167-176.

O'Neil, J. M. (1981a). Male sex role conflict, sexism, and masculinity: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9*(2). 61-80.

O'Neil, J. M. (1981b).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203-210.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5), 335-350.

Pederson, E. L., & Vogel, D. L.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73-384.

Rogehr, C., Hill, J., Kott, T., & Sault, B. (2003),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trauma in new recruits and experienced fire fighters, *Stress and Health, 19*(4), 189-193.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gley, D. L., & Hall, P. A. (2007).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3), 477-490.

Sorotzkin, B. (1985). The quest for perfection: A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2*(3), 564.

Stephens, C., & Long, N., (2000). Communication with police supervisors and peers as a buffer of work-related traumatic str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4), 407-424.

Thomas-Riddle, F. R.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Thompson, E. H., Pleck, J. H., & Ferrera, D. L. (1992). Men and masculinities: Scales for masculinity ideology and masculinity-related constructs. *Sex Roles, 27*(11-12), 573 - 607.

Topkaya, N. (2014). Gender, Self-Stigma, and Public Stigma in Predicti

ng Attitudes toward Psychological Help-Seeking.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4*(2), 480-487.

Violanti, J. M. (1992). Coping strategies among police recruits in a high-stress trai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6), 717-729.

Violanti, J. M., Vena, J. E., &Marshall, J. R. (1986). Disease risk and mortality among police officers: New evidence and contributing factors. *Journal of Police Science &Administration, 14*(1), 17-23.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361.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25-337.

Vogel, D. L., Wade, N. G., & Hackler, A. H. (2007).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40-50.

Vogel, D. L., & Pederson, E. L.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73-384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Sage P

ublications, Inc.

William M. L., Derek K. I., (2006). Asian American Men's Gender Role Conflict: The Role of Asian Value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7*(3), 153-164.

Wills, T. A., & Depaulo, B. M. (1991). Interpersonal analysis of the help-seeking process. In C. R. Snyn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162, 350-375.* Elmsford, NY; Pergamon Press

Yen, C. F., Chen, C. C., Lee, Y., Tang, T. C., Ko, C. H., & Yen, J. Y. (2009). Associ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self stigma, insight, and adverse effects of medication i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Depression and anxiety, 26*(11), 1033-1039.

no. _____.

< 설 문 지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남성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중 경험하게 되는 외상 사건과 그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 지원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연구 대상자 및 기간

: 본 연구는 국내 남성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설문 기간은 2020년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 연구의 참여는 본 설문지 또는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작성하게 됩니다. 총 106개 문항에 답하는 데에는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각 문항 당 무응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빠진 문항이 있는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 애써 작성해주신 설문지가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빠진 항목 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연구 참여 시 보상

: 설문지 작성 완료 후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귀하의 핸드폰 번호 기입 시, 설문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번호로 답례품(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되며, 지급 직후 이 정보는 폐기됩니다.

5. 연구 참여 시 위험 및 불편

: 본 연구는 15 ~ 20분가량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로, 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연구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과 관련하여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를 대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 요청이 가능한 연락처 안내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사건 당시의 기억이 의도치 않게 떠오르거나 다시 경험하는 듯 한 느낌이 지속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전문상담사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희망의 전화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시면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일반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상담원과 연결되어 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는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담은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채팅 상담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전화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는 1588-9191에 통화 연결을 통해, 사이버 상담은 생명의 전화 홈페이지 (www.lifeline.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상담원과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정신보건복지센터 (블루터치)

블루터치 홈페이지(bluetouch.net)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소개하고 정신건강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울, 불안, 자살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연구책임자 연락처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지 도 교 수 : 신효정(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교육 전공 주임교수)
- 연구자 성명 : 김현정(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교육 전공 석사과정)
- 연구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무기명 사인 ( )

Ⅰ. 외상 사건 경험 척도 23문항 (List of Work Events)

다음은 여러분이 직무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입니다.

1) 경찰관 재직 중 경험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험한 사건에 대해 본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어느 정도였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며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해 (√)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1) 경험 사건		2) 겪은 스트레스				
	본인이 경험한 직무관련 사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별로 없었다	보통	심했다	매우 심했다
예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	②	①	②	③	√	⑤
1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근무 중 타인에게 총격 및 총기를 겨누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근무 중 타인에게(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근무 중 흉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근무 중(흉기에 의하지 않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고속의 차량 추격전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위험한 영장을 집행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근무 중 심각한 차량사고(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한)를 경험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 항	1) 경험 사건		2) 겪은 스트레스				
	본인이 경험한 직무관련 사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별로 없었다	보통	심했다	매우 심했다
10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6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7	강간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8	납치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9	성폭행 당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0	학대받거나 방임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1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2	자연재해(수해, 산불 등)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3	인재(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사건 충격 (IES-R-K) 척도 22문항

다음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위에서 경험했다고 표시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 아래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3) 본인이 경험한 증상	없다	드물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많이 있다
1	그 때의 일이 생각났고, 그때의 느낌도 되살아났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잠을 설쳤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일로 인해 그 때 일이 생각났다.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고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5	그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게 되면서 흥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일이 생각났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치 그 일이 없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피했다.	①	②	③	④	⑤
9	갑자기 그 때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10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잘 놀랬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그 일로 아직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3) 본인이 경험한 증상	없다	드물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많이 있다
13	그 일로 인해 무감각해지는 걸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4	마치 그 당시 되돌아 간 듯이 느끼고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그 일이 떠올라서 잠들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6	그 일과 관련된 감정이 불쑥 북받쳐 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17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①	②	③	④	⑤
18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그 일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장애, 현기증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신체적으로 반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그 사건에 대해 꿈을 꾸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매우 조심하며 경계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2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Ⅱ.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PSPS-K) 척도 19문항

다음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평소의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 문제를 늘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에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나의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내가 맡은 일이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내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내가 잘할 수 없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완벽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지적받는 것이 무척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언제나 내 행동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내가 나의 일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완벽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한국어 성역할 갈등 (K-MGRCK) 축약형 척도 12문항

다음 각 문항들을 잘 읽고 귀하가 그 문장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의 정도를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1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Ⅳ. 자기 낙인 (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 SSOSH) 척도 10문항

간혹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느낌이 가장 부합하도록 각 문항에 대해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면 나는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아도 나의 자신감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심리적 치료를 받게 된다면 나 자신이 덜 지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심리치료자와 얘기를 한다면 나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심리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관점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심리치료자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면 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전문적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결심한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괜찮다고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심리치료자를 찾게 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덜 만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려 한다고 해도 나의 자신감은 여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면 나는 나에 대해 더 안 좋게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V.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ATSPPH-SH) 축약형 척도 10문항

다음 각 문항에서 평소의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평소 생각하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우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4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존경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받았다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겠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언젠가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7	정서적인 문제(예: 우울, 불안, 분노 등)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9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Ⅵ.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별거 ⑤ 이혼 ⑥ 기타 ( )

3. 학력 (각 과정은 중퇴 및 재학을 포함합니다.)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4. 계급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

5. 입직 경로

① 순경 공채 ② 순경 ~ 경사 특채 ③ 간부후보생 ④ 경찰대학
⑤ 고시특채 ⑥ 기타 ( )

6. 현 소속 급서

① 1급서 ② 2급서 ③ 3급서 ④ 4급서

7. 현 근무 부서

① 과학수사대 ② 형사 · 수사 ③ 지구대 · 파출소
④ 경기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내근 ⑤ 기타 ( )

8. 총 근무 년 수 ( )년

8-1. 전체 근무 년 수 중 외근 부서에서 근무한 년 수 ( )년
(*외근부서: 과학수사, 지구대, 형사, 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사고조사 등)

9. 건강 상태

① 매우 건강 ② 대체로 건강 ③ 보통
④ 약간의 질병 보유 ⑤ 심각한 질병 보유

10. 당신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 귀한 시간 내시어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